

# 勞 '1만원 선' vs 使 '동결'... 최저임금 온도차

## 비정규직지원센터, 최저임금 조사 노동자 46% "3~6% 미만 인상해야" 사업주 "원자재-물가상승 어려움 커" 최저임금 준수율 93%, 6년 만 최고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광주지역 노동자 90% 이상은 '3% 이상 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주 대부분은 '동결하거나 소폭 인상'하는 안을 희망해 노사 간 온도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환경 변화를 조사한 '2023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노동자 45.9%가 '3~6% 미만(9909원~1만197원 미만)' 인상을

을 선택했다. 이어 '3% 미만(9909원 미만)' 15.7%, '6~9%미만(1만197원~1만486원 미만)' 11.8%, '동결(9620원)' 9.0%, '15% 이상(1만1063원 이상)' 6.3% 등의 순으로 답하는 등 90% 이상이 '3% 이상' 인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주 60.5%는 '올해와 동결(9620원)'을 희망했다. 이어 '3% 미만(9909원 미만)' 20.5%, '3~6% 미만(9909원~1만197원 미만)' 7.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편의점, 식음료업, 마트, 판매업, 건물경비, 청소미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노동자 458명, 사업주 190명 등 총 648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은 92.5%로 집계됐다. 지난해 85.5%보다 7%p 상승했고 2018년부터 6차례 진행한 조사 중 최고 준수율을 보였다. 매년 40~60%대(2018년 45.8%, 2020년 67.1%)의 낮은 준수율을 보여온 편의점이 이번 조사에서는 86.1%를 보여 전체 평균치를 높였다.

노동환경 변화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의 7%가 '올해 들어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는데 '근무시간 단축(42.9%)', '휴게시간 연장(28.6%)'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사업주 48.5%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본인(가족)이 근무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원자재-물가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업장 운영 어려움 요인으로는 '원자재 및 물가 상승(57.4%)'이 가장 많았고, '세금·공과금(39.5%)'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53.9%가 찬성했다. '내 일이 힘들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게 받을 수 있을 듯해서'가 51.2%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힘든 업종을 상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가 85.4%였다. 차등적용에 대해 찬성율이 높아지긴 했으나 내용적으로는 힘든 업종이 더 높아야 하고 최저임금 기준선을 마련해놓고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최저임금을 낮추기 위해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과는 달랐다.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해서는 59.8%가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받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편의점(16.7%), 식당(33.8%), 카페(34.5%) 등 20대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서는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낮게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산업안전 관련 교육과 관련한 질문에는 70.3%의 사업장에서 관련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업(40.0%), 편의점(45.8%), 카페(60.3%) 등 정규직원보다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개념이 강한 업종은 임금명세서 교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교육 실시율이 낮게 나타났다.

정찬호 센터장은 "매년 관계 당국의 노력과 노사 간의 노동인권 의식 향상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준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상향식 차등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20~30대 청년층 일자리 중심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와 산업안전 관련 교육이 미흡한 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홈플러스, 장마철 대비 '뽕송 플러스 솔루션'**  
홈플러스가올여름여객대급 장마를 앞두고 건조기, 제습기 등 장마철 필수 아이템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뽕송 플러스 솔루션' 행사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한다. 건조기와 의류 관리기 등 대형가전은 행사 상품 구매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한·삼성카드 200만원 이상 결제 시 10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며, 결제 금액별 최대 180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 양동건어물시장, 어린이 '乾물생심 시장체험' 눈길

### 유치원 등 대상 내달까지 운영

광주 양동건어물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7월까지 광주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인 '건물생심 시장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은 사단법인 한국 사립유치원협의회와 협업해 진행되며 약 1200명의 어린이가 방문할 예정이다.

'건물생심 시장체험'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편식제외운동 등 다양한 시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장보기

체험을 통해 식재료가 유통되는 환경을 어린이들이 직접 느끼고 물건을 사면서 올바른 경제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어린이들의 편식 개선을 위해 김·멸치 등 건어물의 효능을 알리고 직접 먹어볼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식제외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명근양동건어물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을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전통시장을 친숙하게 느꼈으면 한다"며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 한국은행 목포본부, 27일 지역경제 세미나

한국은행 목포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상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전남경제의 선순환구조 정착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발전과제'를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성장 방안과 인구감소·저성장 대응에 필요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정기영 세한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1부)와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2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한솔 한국은행 과장이 '전남지역 소득 및 소비 역외유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을, 나주몽 전남대 교수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변천과 지역순환경제 강화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이형기 목포대 교수, 이상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문경년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 최예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노원중 한국은행 팀장 등이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권범 기자

## 지역 경제계,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 광주·목포 상의 등 공동성명 미래 핵심산업 육성 등 절실

지역 경제계가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13일 목포·여수·순천·광양 등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사진)

5개 상의는 성명을 통해 "광주와 전남은 오랜기간 지역 불균형에 따라 열악한 산업 인프라, 인구의 유출, 인력난 심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지역 경제 침체, 인구 유출, 지역 소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반도체와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광주와 전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육성의 최적지"면서 "충분하고 안정적인 용수의 공급과 오퍼수의 처리는 물론 GIST·전남대를 비롯한 지역 내 우



수한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한 각종 연구와 기술개발, 우수인재 양성 등 다양한 역할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인 RE100 등 에너지믹스의 실현이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가 우리 지역에 조성된다면 인접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비롯한 AI집적단지 등과 함께 향후 다양한 산업분야를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등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성

공적으로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또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가전, 우주항공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무한한 성장 또한 가능하게 될 것이다"면서 "더불어 'AI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라는 제20대 대선공약의 실현은 물론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며, 초광역협력의 모범사례로도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 삼성전자, 미래형 주거형태 '넷 제로 홈' 글로벌 확대

### 태양광 업체 '솔라엣지'와 협력 '스마트싱스 에너지' 해외 확장

삼성전자는 글로벌 1위 태양광 스마트인버터 기업인 '솔라엣지(SolarEdge)'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형 주거형태인 '넷 제로 홈(Net Zero Home)'을 본격 확산시킨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는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 모니터링은 물론 손쉬운 에너지 절감까지 가능해 넷 제로 홈 사업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한화큐셀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SMA, 맥시온(Maxeon) 등 다양한 태양광 업체들과 손을 잡았으며,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스마트 인버터 전문기업인 솔라엣지와 계약을 통해 유럽 내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가정용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Energy Storage System, ESS)를 통해 생산된 에너지의 양을 모니터링하고 'AI 절약모드'를 통해 스마트싱스에 연결된 가전제품들이 알아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부터 스마트싱스 에너지에서 시간대별 탄소 집약도 정보도 새롭게 제공한다.

탄소 집약도는 전력 1kWh 소비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하며, 소비자는 제품별 탄소 배출량 예측값을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을 체감하고, 상대적으로 탄소 집약도가 낮은 시간대를 선택해 탄소 절감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력 사용량 피크 시간대에 에너지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면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Demand Response)'를 국내에 이어 글로벌로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부터 서울시·한국전력공사와 협력해 에너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5월에는 나주시와도 협업을 시작했다. 6월말 부터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도 DR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4일부터 16일까지(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인터솔라(Intersolar)'에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스마트싱스 에너지와 EHS(Eco Heating System)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선보인다.

곽지혜 기자